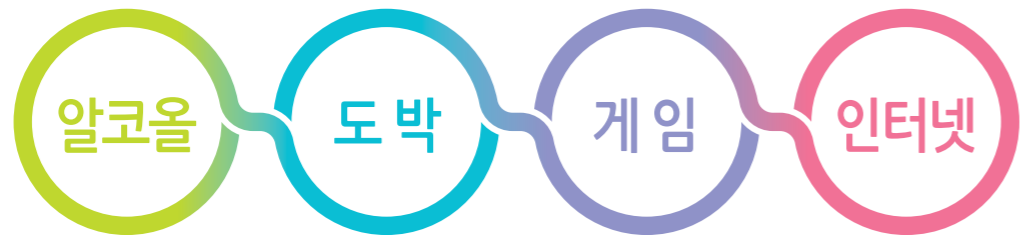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중독전문상담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개입으로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전문 의료기관 선정



마음사랑병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통해 <2020년 도박중독전문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박 외래치료비 지원: 1년 **80만원** 지원 (치료자 1인당 / 검사비 및 약제비 포함)

전주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협약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 및 외래/입원 치료 지원,
퇴원후 중독극복과
사후관리를 도와드립니다.

군산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고객상담센터(24시간 상담) : 063-240-2114 ☎ 중독상담실 : 063-240-2134

마음사랑

2020 여름호
VOL.91

마음사랑 소식지는 열린마음, 밝은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대통령이 칭찬하신
마음사랑병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성부 인증



남녀고용평등
대통령상 수상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근로자 건강증진 사례
우수상 수상



기업학습 우수사례 기관 선정
노사 한누리상 수상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Cover Story_ 마음사랑병원 '스마일캠페인'
 마음사랑병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직원들의 친절, 사랑 그리고 새 희망의 미소입니다.

마음사랑 소식지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병원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본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사랑 소식지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2020년 봄호 VOL.91

발행처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5534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465-23 Soyangro, Soyangmyeon, Wanjugun, Jeonbuk, Korea 55347

발행인 정운진 발행일 2020년 3월 1일 전화 063) 240-2100 팩스 063) 240-2117

기획·편집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기획팀(홍보위원회) 디자인 제작 (주)크리에이티브에드 창 02) 3446-9379~80



소식지 봄

마음사랑

CONTENTS

인사말		
여는 글	감사를 감사하며	04
건강		
건강 길라잡이	한국의 은퇴	06
메디컬 칼럼	도박도 중독이다	08
치료		
특집	보건복지부지정 낮병원 시범사업병원 선정	10
프로그램	우리함께 세상 속 나를 꿈꾸는 외부활동 프로그램	12
기획		
기획이슈	2020 슬로건 : 더 높이 더 가까이	14
브릿지		
내 마음의 쉼표	2년 차 간호사 인터뷰	16
정보		
휴(休)	봄 여름 가을 겨울	18
스토리		
마음나누기-1	아름다운 나비	20
마음나누기-2	마음사랑 꽃,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2
열정 36.5℃	환자와 고객의 든든한 만능해결사 원무팀 이야기	24
뉴스&안내		
마음사랑뉴스	뉴스/재단소식	26
Information	가족교육	32
	셔틀버스안내	33
	마음사랑후원회	34
	심신치료센터	35


		감	사	를				
				감	사	하	며	

BBC의 <머나먼 등곶길>이라는 다큐멘터리. 페루의 티티카카호수에 사는 어린이들이 학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호수에서 자라는 토트로라는 갈대를 쌓아 만든 인공 섬에 살며 매일 두세 시간이 넘게 갈대보트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호수의 갈대 숲길은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기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저 뱅뱅 돌기 십상인 그 길을, 중학생인 어린 소녀가 작은 보트에 올라 노를 저으며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도착할 즈음 이미 지쳐버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지만 땅위에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 수도 있고 또 장래를 위해 부족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기에 어떻게든 다녀야 합니다. 특히 바람이 거세지는 오후에 노를 저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넓디넓은 호수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갈대보트를 온 힘을 다해 저으며 생과사를 가르는 어린소녀가 참 짠했습니다. 그런 자식을 가슴 졸이며 날마다 기다리는 우루족 어머니. 땅에서 흙을 밟고 사는 일조차도 고마워 해야 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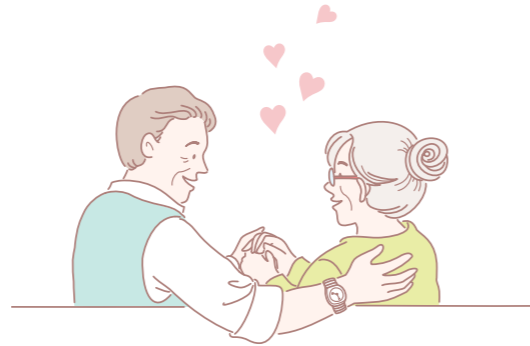
도대체 난 어디에서 왔을까? 어려서 외국으로 보내져 자신과 전혀 다른 피부색과 얼굴모습을 지닌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야 했던 해외입양아. 자신이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자매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일었던 의문과 갈등. 피가 섞인 가족 특히 생모를 찾겠다고 미국 유럽 등 멀리서 한국을 찾아오지만 많은 경우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고는 길에서 발견되었을 때의 상황을 적은 입양기관의 형식적인 서류뿐. 자신이 갓난아기 시절 버려졌던 장소만 알게 되어도 그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연결하고 싶어 하는 그들. 부모가 자신들을 무작정 버린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고자 부득이 포기했던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낸 세월. 그런 부모를 이해하고 전혀 비난하지 않으니 살아있다면 제발 이제라도 연락 달라고, 바라는 것 하나 없고 오직 자신들이 누구인지 뿌리를 찾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TV속의 그들.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 속에서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이 사는 일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봅니다.

이상기후로 지난 겨울은 그다지 춥지도 않고 눈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덮인 창밖을 보며 출근길 운전을 걱정했던 하얀 겨울날 아침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겨울이 못된 겨울이라, 봄도 되기 전에 벌써 미세먼지는 우리 하늘을 차지하고선 비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파란하늘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먼 옛날이야기 같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던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전혀 몰랐지요. 창문을 꼭꼭 닫고 주말에도 집에 갇혀 지낼 줄 꿈에도 몰랐지요. 강아지들은 지면에 가까이 걸어 미세먼지에 더 노출된다는 말에 밖에도 못나가고 집에 갇혀 늘어지게 잠만 자는 멍멍이를 보자니, 오줌 똥 싸는 강아지 뒤치다꺼리하며 산책하던 날들이 아~행복이었습니다. 눈다운 눈을 보지 못하고 겨울이 가버리나 포기할 때 쯤 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길을 들뜬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마시며 눈길을 걷는 일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 줄 온 몸으로 알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관심사입니다. 온 국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서로가 서로를 피하지 않고 맨 얼굴로 마음 편히 지나치는 것도 감사할 일이었음을 이제 배웁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외출외박 및 면회가 제한되어도 불평 않고 협조해주는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환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관리에 힘쓰는 직원들 모두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거리는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는 보물보따리 같아요. 고통스런 순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아~ 이런 감사함을 찾으며 봄을 맞아야겠습니다. 그 봄은 예전의 봄과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봄을 드립니다. 감사를 감사하는 봄! 

글 | 김성의 이사장

한국의 은퇴



은퇴란 어떤 사회에서든 일을 하고 있는 개인에게 어려운 전환기이지만, 한국인들에게 특히 더 어렵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발전하는 데 200년 이상이 걸렸지만, 한국은 50년이라는 빠른 기간에 걸쳐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들의 부모가 은퇴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첫 은퇴 세대이다. 따라서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거나 즐기는 방법에 대해 참고할 사례가 없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는 사회 관습면에서 극적인 변화와 세대 간의 두드러지게 다른 경험으로 빚어진 큰 세대격차를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지금의 60대는 그들이 40대 때와 20대 겪은 것과 확연하게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결혼한 부부 사이의 관계도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은퇴하여 갑작스럽게 집에 머물게 된 남편은 이전부터 스스로 가사를 잘 해오던 부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많은 은퇴자들은 집에서 둘이 생활하며, 부부는 전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갈등을 완화시켜줄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한다. 지금껏 부부는 가사분담을 함께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어느 다른 주부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 전적으로 요리와 설거지 그리고 빨래, 청소를 맡아온 주부들은 만약 남편이 은퇴 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가사를 도울 것을 요청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를 돕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며,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남자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로운 가족 분위기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만약 부부가 풀지않은 채로 갈등을 방치한다면, 남편과 부인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 한국은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 문화가 부족하고, 자신과 다르더라도 존중 받아함을 깨닫지 못해 많은 오해를 일으킨다.



은퇴자들에게 그들의 자녀와의 불화는 큰 불행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은 종종 부족한 이해나 세대 간 의사소통 부재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한은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그들에게 서슴없이 충고하지 않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전통에 의하면 자녀가 18살이 되면 조언을 주는 것을 멈춘다. 미국의 부모들은 확실하게 자녀가 자문을 구할 때에만 조언을 한다. 나는 미국에서 3명의 아들을 키웠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어떤 대학교를 가야할지, 어떤 직업을 구할지 또는 결혼승낙 여부 등에 대해 조언을 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구할 직장이 넘쳐나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적게 참견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즉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혼수나 결혼비용을 준비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젊은이들이 재정적인 독립을 쉽게 이루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데 있어 부모로부터 얼마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지에 대한 갈등이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자녀들 사이에서 누가 더 유산을 더 상속받는지에 따른 다툼도 드물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는 돈이 아닌 애정에 기반한다.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의 일과 관련하여 평정심을 잃거나,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경우를 보며 놀라곤 한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취미생활을 하던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형편에 맞춰 이곳 저곳 국내든 해외든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으며, 그림이나 서예, 사교댄스 등을 배울 수도 있다.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거나 또는 소일거리로 텃밭을 일굴 수 있다. 나이트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약기를 배우는 것을 쉽게 권할 순 없지만, 음악의 진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 곳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약기를 배우고 음악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 게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 아니면 배우자 혹은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주민센터 등의 수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면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며 살아왔고 또 쓰고 있을 수 있다. 자녀와 세상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이 떠난 후에도 잘 살고 잘 흘러갈 것이다. 걱정은 잊어버리고 그저 몸을 바빠 움직이며 은퇴 후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황수택 진료원장

도박도 중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진영 진료과장

우리는 주변에서 “오늘 약속에 그 친구가 늦는다는데 천원을 걸겠어!” 처럼 무언가에 가볍게 내기를 거는 말이 귀에 익숙할 것이다. 이런 가벼운 내기는 문화적으로 이벤트나 게임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분위기를 이끄는 것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내기나 도박이 단순히 일회적인 오락과 재미로 끝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원하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도박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거는 행위인데, 간단히 대입해보면 복권이나 도박처럼 거액의 돈을 따기 위해 소액의 돈을 거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적으로 오락이나 게임으로 머무를 수 있지만, 재산 탕진으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족간의 관계나 직장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 상태로 이어지면 <도박장애>라는 병적 상태로 볼 수 있다. 일반인이 하는 오락 수준의 도박을 ‘사회적 도박’이라 한다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병적 도박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더 큰 액수의 돈을 얻기 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돈보다 어디에선 무언가를 걸고 따냈을 때의 쾌감을 목적으로 한다.

도박장애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패턴을 살펴보면,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려 할 때 안절부절하며 과민해짐, 도박을 조절하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함, 종일토록 도박에 집착함,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도박으로 이어짐,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도박하는 행동, 도박에 관련된 정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행동, 도박으로 중요한 관계, 직업, 교육적 기회의 박탈, 도박으로 야기된 문제로 인해 돈 조달을 남에게 의존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위의 사항에 더 많이 해당될수록 도박장애의 정도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도박장애의 유병률은 0.2~0.3%라 한다. 도박장애의 발생은 흔히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지만 중년 혹은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스포츠 토토 등의 사이버 도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으며, 최근 도박중독자 3명 중 2명은 20-30대이고 도박중독의 더 빠른 진행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견된다. 또한 도박의 패턴은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한 때 끊은 시기를 보이다 다시 시작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도박장애는 갑자기 장기간의 끊은 시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은 자신이 도박장애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도박중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끊은 시기 동안에 자신의 도박문제에 대한 과소평가는 스스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결국 도박장애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게 된다.

이렇듯 도박장애도 분명한 장애이며 중독의 하나이기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이 필요하며 체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흔하게는 인지행동치료 등의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며, 알코올중독에서처럼 단도박모임 G.A.(Gamblers Anonymous)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항우울제나 항갈망제 같은 약물 치료도 효과가 있다.

많은 중독자들이 그런 것처럼 도박장애의 병적 도박자들도 자신의 문제를 축소화하고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할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주변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격려해주며 치료를 도모함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가족들을 위한 익명의 단도박 가족모임이 있듯 가족치료 또한 상당히 중요함을 덧붙인다.

혹여나 개인이 혹은 가족이 문화적으로 가볍게 시작한 도박이 어느새 병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반드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짧은 지면을 통해 격려하는 바이다.♥

마음사랑병원 중독상담실 063-240-2134 고객상담센터 063-240-2114 (24시간 상담)

2020년부터 마음사랑병원이 <도박중독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박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전문가 양성 및 도박중독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도박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낮병원 시범사업병원 선정

글 | 낮병원 이희준 책임간호사



낮병원이란?

낮 시간에는 병원에서 재활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고, 밤에는 귀가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입원과 외래치료의 장점을 살린 치료 형태입니다.

마음사랑병원 우리함께 낮병원은 그동안의 낮병원 운영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2020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지정 낮병원 시범사업병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낮병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치료의 질은 높이고 회원과 가족에게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알찬 낮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함께 낮병원과 함께하면 좋은점

1 통합재활시스템 <드림브릿지>

드림 브릿지(Dream Bridge)

환자와 가족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급성기 질환부터 퇴원 후 사회복귀까지
인산의료재단이 여러분을 위한
꿈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마음사랑병원 체계적인 통합재활시스템



2 가족 보호자 자조모임 '다시, 봄' 운영

대상자 보호자들로 구성된 자조그룹으로 월 1회 가족교육을 진행하고 분기별 1회 주치의와 함께 하는 지지모임이 진행됩니다.

3 자기 주도적 생활 운용 능력 향상

등록 기간과 증상에 따라 세단계로 나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 그룹에 맞추어 대인 관계훈련부터 시작하여 회원 간에 서로를 지원하는 동료지원가라는 전문적 활동까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가족들의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재발방지와 재입원예방으로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가정과 사회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얻고 또한 취미개발을 도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속이 짝 찬 낮병원 프로그램

대분류	소분류	
신체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댄스 방송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크체육(장애인복지관 이용프로그램 탁구, 배드민턴, 레크레이션) 피어두리 축구클럽
인지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행동치료 	
증상 및 약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과 스트레스 이해 약물치료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방지 프로그램 증상일기, 감사일기
정서 및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창(우리함께 하모니) 원예치료 다도요법 공예치료(각종 인테리어 소품 및 생활용품 제작) 도예(도자기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극 이야기치료
사회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적응훈련(월별 아웃팅) 요리교실(순희네반찬)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배드민턴, 탁구, 바둑, 장기, 노래, 댄스 동아리) 감사일기(강점실천 기반 자기주도적 생활 운용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능력강화 프로그램(성인식 및 태도, 금전 및 경제관리) 지역사회 인식개선활동(다운누리 자원봉사단 활동) 치료공동체회의
취로지원 및 직업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통합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 축제 및 이벤트 참여, 연합체육대회, 시사상식 대회) 취업동기부여 프로그램: 동료지원 - 토크유, 장애인고용사업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잡코칭프로그램 (Job Coaching) : 매너 에티켓, 자기소개서 작성, 이력서 쓰기, 취업장 방문 제과제빵(드림베이커리) 원외 취로지원(취업장 사전 체험)
가족교육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자조모임(다시,봄) 및 상담 가족 대상 정신건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방문 Follow Up(신규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우리함께 세상 속 나를 꿈꾸는 외부활동 프로그램

글 | 마음사랑병원 프로그램파트



“
시장이요? 가고 싶은데 가본적이 많지 않아서...
버스 타본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타야하는지...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무섭기도 하고...
”

정신질환을 오래 앓았던 사람들에게 처음 또는 다시 시작하는 사소한 일조차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이런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리게 되고 점차 사회와 단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사랑병원은 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 다양한 외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특성상 급성기 환자와는 달리 만성 환자의 경우 장기입원에서 오는 지루함을 해소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 외부활동 프로그램

♥ 가족야유회(사회사업팀 진행)

가족의 갑작스러운 발병은 환자의 치료 과정 속에서 온 가족 구성원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치료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증상이 안정될 즈음, 가족야유회는 환자의 회복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소원해졌을 가족 간의 관계를 되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과 환자가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감정을 환기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체험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을 경험하며 환자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체육대회(중독치료센터 진행)

게임하지 않고 온전한 하루 보내기. 술에 취해있지 않고 깨어있는 하루를 보내고 도박을 하지 않고도 즐거울 수 있으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해 깨닫습니다. 배구, 발야구, 계주, 줄다리기 등의 경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자들은 건강은 물론 성취감을 얻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서로 간의 우정을 다지고 치료진과의 건강한 라포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 시장 나들이(사랑클리닉 진행)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재활병동 사랑클리닉에서는 매월 2회 장보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단계에 있는 환자 한 명이 리더를 맡아 동료지원가로서 활동합니다. 장을 보기 전, 현명한 소비를 위한 계획수립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장방문, 계획에 맞는 물품구매까지 직접 실행하며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화하여 낮병원에서는 장차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전관리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퇴원 후 재활단계에 있는 회원들이 자칫 나라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를 잘못된 꼬임에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거나 잘못된 소비패턴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원들이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기본적인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요리요법을 진행합니다.



♥ 낮병원 외부활동 프로그램

낮병원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소풍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썰매 타 Go, 산수유 피는 봄이오면, 벚꽃 피크닉, 드림브릿지 체육대회, 대아수목원 방문 등>을 매월 다녀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적응훈련 <영화관, 미술관, 문화시설 방문>, 팀별활동 <주말 피크닉 도시락싸기, 여가시간 활용하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통해 회원들은 계획하는 방법을 배우고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얻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주말이나 남은 시간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매일 잠만 잤는데, 이제는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병에 걸린 이후부터 친구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고 그립기도 했는데, 낮병원에서 친구를 사귀고 함께 놀러 다닐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 외에도 낮병원 회원들은 스스로 자조그룹을 결성하여 저녁 시간과 주말에 모여 탁구를 치거나 영화관에 다녀와 치료진에게 자랑스럽게 후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본원의 대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치매병동 환자와 함께하는 어르신 나들이, 병동별 주치의 나들이 등 다양한 외부 활동으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사랑병원과 함께라면 어려운 첫 발걸음을 떼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강점을 살려 회복과 재활로!' 마음사랑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

2020 슬로건 : 더 높이, 더 가까이

고객만족과 치료성과를 더 높이기!

정신건강

마음사랑병원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우수한 전문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환자 개인별로 맞춤형된 전문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M-ECT (전기자극치료) 등을 병행하여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치료 전문병동(심신치료센터)을 운영하여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중독

중독치료의 핵심은 중독질환(알코올, 도박, 게임, 인터넷 등)에 대한 교육과 치료 시스템입니다.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에서는 중독치료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시스템을 중심으로 중독 상담사와의 1:1 집중면담, 중독재활전문가의 전인화교육, 회복12단계, 술 없는 인생, 알코올 회복자와 함께하는 T.A.모임/A.A.모임 등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단주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

든든했던 부모님이 치매증상과 이상행동을 보이실 때, 어떻게 해야할 지 큰 고민이 될 것 입니다. 본원은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며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노인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입증된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요법 및 미술요법 그리고 오락요법을 통해 노인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낮병원

마음사랑병원의 낮병원<우리함께>는 입원과 외래치료의 장점을 살린 부분입원형태로 운영되며,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낮병원 회원들은 전주지역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치료프로그램, 직업재활, 활동요법,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시범사업병원으로 선정**되어 더욱 질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앞서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의학연구소를 운영하여 학술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의학발전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정신건강의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기 위하여 치료진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객만족과 치료성과'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및 가족,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병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합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역 사회의 모든 분들과 '더 가까이' 연결하여, 저희를 믿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족의 품으로, 가정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정신건강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다양한 기관과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14개의 보건소, 12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2개의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있으며, 3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요원,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경찰관, 119 구급대원, 시군구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분들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정신건강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지역사회 모든 분들과 적극적인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전북지역 정신건강증진을 이끌어가는 병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신건강상담이 이루어지며, 2019년에는 2,500여 건의 전문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600여 명의 입원환자, 200여 건의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의뢰 등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마음사랑병원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처, 정신건강 정보제공, 치료방법 및 치료기관 안내, 입원 및 퇴원 후 관리상담, 기타 정신과적 상담 진행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직원들은 고객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최선의 치료라는 믿음으로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2020년 마음사랑병원! 고객만족과 치료성과를 더 높이기! 환자 및 가족과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감사합니다.♥

[2년 차 간호사 인터뷰]

춘하추동 春夏秋冬

글 | 마음클리닉 이장호 간호사

어느 겨울 이른 아침, 옷을 단정히 하고 혹여나 추울까 겹옷을 여미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집밖을 나섰습니다. 몸이 떨리는 것도 '추워서겠지'라고 긴장한 마음을 달래주며 도착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사랑합니다"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 날은 2019년 2월 11일 마음사랑병원으로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걱정했는지, 그날이 마치 어제 꿈처럼 생생합니다.

신규 간호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병동 업무를 하나둘씩 배워나갈 쯤, 밖에선 꽃들이 스스로 세상에 인사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마음만은 첫날의 긴장과 추위가 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 제 마음을 녹여준 사람들 바로 선배 및 동기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선배간호사들은 크고 작은 실수에도 제가 기죽지 않도록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조언과 가르침을 주었고, 환자들과 신뢰관계를 쌓으며 치료, 간호, 사랑 등을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런 선배간호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팅게일의 박애, 봉사 정신을 진정으로 꽃피울 수 있는 병원이라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순간부터 기계적으로 정해진 일을 하는 간호사가 아닌, 마음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병동 업무에 대해 익숙해질 무렵 문득, 환자의 마음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회의감이 들면서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지금도 혹여 정신간호사의 책임을 잊고 환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환자들을 항상 진정성 있게 대하는 선배 및 동기간호사들을 보며 경각심을 챙깁니다.

어느 날 나이트 근무 때 병동 라운딩을 하며 환자들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통 받았을 환자들이 편히 자는 모습을 보며, 마치 근무 중인 저를 믿고 편히 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요즘, 첫 출근의 날처럼 옷을 여미고 집 밖을 나옵니다. 첫날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초심을 생각하고 환자들이 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선배 및 동료간호사들의 진정성,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던 그날의 마음을 앞으로도 가져가려 합니다. 사랑합니다.♥

심신치료센터 권 옥희 간호사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입사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신규로서 힘들 때 함께 근무하는 병동 선생님들께서 진심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발 벗고 도와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클리닉 박 현 간호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입사 1년이 다가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0년에도 환자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웃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중독치료센터 유현정 간호사



중독치료센터에서 근무한지 벌써 6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 신규간호사입니다. 3개월 조금 넘게 근무를 해보니 일반 임상과는 다르게 사람과 마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는 요즘, 고된 날도 있었고 아직 행동이나 지식에 있어 미흡한 점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여 전문성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여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햇살클리닉 윤희상 간호사



정신과를 선택 할 때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직접 간호를 하며 부딪혀보니, 이 곳에 입원 해 있는 환자분들도 증상을 치료하고 호전되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정신과 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치료진이 함께하는 행사인 <환우송년회> 무대를 준비하며, 환자분들과 즐겁고 유쾌한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따스한 기억처럼 환자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치료진이 되고 싶습니다.

심신치료센터 이 건우 간호사



처음 심신치료센터라는 곳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정신과에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업무에 임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환자와 공감, 위로, 격려의 말로 치료적 의사소통을 이룸으로써, 점차적으로 환자분들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치료자의 관심이 정신질환자에게는 긍정적이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환자분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는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클리닉 이장호 간호사



병원의 사명인 환자의 마음을 얻는 일을 1년 가까이 하며 얼마나 환자의 마음을 얻었는지 돌아봅니다. 항상 건네는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처럼, 환자와 동료, 선배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또한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사랑하고 진정성 있는 간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심신치료센터 정연주 간호사



잔뜩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음사랑병원에 첫발을 내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했는데 어느덧 봄이 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했던 저를 선배 간호사님들이 부단히 이끌어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본받을 수 있었고, 또 환우들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원클리닉 주진 간호사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끼쳤던 신규로서의 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치매 병동에서 근무하며 다른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이니 만큼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런 저라도 "항상 예쁘다, 고맙다"라고 말씀 해주시는 원클리닉 어르신들을 앞으로도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꿈빛클리닉 황 다은 간호사



업무적으로 부진한 날이면 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며 속상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근무하는 병동 선생님들께서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어려운 부분을 함께 해결해주시려 노력해주셨습니다. 제가 받았던 지지와 격려처럼 새롭게 입사할 신규간호사님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by 주세페 아르침볼도

글 | 기획팀 강서연

이 작품은 사람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각 계절을 상징하는 식물을 섬세하게 배치하여 인간의 얼굴로 형상화한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대표작을 소개합니다.

작품이야기

인생의 네 단계인 유년, 청년, 장년, 노년의 모습이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작품으로 익살스럽게 묘사되었습니다. 봄은 머리와 얼굴, 목 그리고 의상이 온갖 종류의 화사한 꽃과 산뜻한 풀로 장식된 젊은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꽃은 젊은이의 건강한 혈색을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밀짚으로 만든 옷을 입은 여름의 인물은 이제 막 성숙한 과일과 채소의 열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이로 코를, 배는 턱을, 강낭콩은 입을 그리고 두 알의 체리는 눈을 나타내고 있는 청년은 유쾌한 듯 웃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니만큼 무르익은 포도송이와 잘 익은 호박 그리고 사과와 곡식의 낱알까지 많은 열매와 수확물이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또한 여름의 밀짚보다 굵어진 나무통의 옷을 입고, 전에 없던 멋들어진 턱수염과 볼수염을 달고 있는 장년의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겨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노인을 나타내듯, 잎사귀가 떨어진 나뭇가지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는 앙상합니다. 목에 달린 메마른 가지는 다 익어 떨어지려는 무거운 열매를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인생의 네 단계를 그린 작품이 아니라, 황제 루돌프 2세를 사계절로 표현한 초상화입니다. 작가가 루돌프 2세의 총애를 받았던 시기에 제작되었는데, 한참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황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유머와 위트가 담긴 이 명화를 그려 선물했습니다. 당시 왕을 신이나 영웅으로 묘사한 기존의 궁정화가들이 그린 초상화와 달리,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참신한 표현에 황제는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작가이야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유명한 화가인 아버지를 도우며 어려서부터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가 35세가 되던 해,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1세의 부름을 받고 프라하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오랫동안 프라하에서 지내면서 페르디난트 1세, 막시밀리안 2세, 루돌프 2세의 3대 왕을 섬기며 신성로마제국의 궁정화가로 일했습니다. 황제와 왕족의 공식적인 초상화 제작을 주 업무로 했던 일반적인 궁정화가들과는 달리, 그는 계절, 원소, 직업과 관련된 사물을 조합하여 구성한 조합 두상(Composite Heads) 기법으로 당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렸던 다양한 대상에 대해 과학자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에 박식한 지식과 능력,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유쾌한 성격까지 갖춘 아르침볼도를 왕들은 신뢰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직전 1592년에는 백작 작위를 받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세페 아르침볼도
Giuseppe Arcimboldo

궁정화가
(이탈리아, 1526 ~ 1593)

아름다운 나비



글 | 아름다운세상(인산의료재단 정신재활시설) 이OO 회원

저는 약 20년 가까이 조현병의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했으나, 현재는 회복하여 아름다운세상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정말 현실인줄 알고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 한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꼼짝 말고 서 있어라, 네가 움직이면 지구가 폭발한다’는 환청에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고 밤을 새워야 했고, 누가 죽었다고 하면 사실인줄 알고 울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얹친 데 덮친 격으로 환시에 시달렸습니다. 환시란 놈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이것은 저를 천국과 지옥이란 곳을 오고 가게 했습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있으면 천국인줄 알았고, 험악하고 무서운 모양의 사람과 형상이 보이면 그곳이 지옥일거라 생각하며 혼자 외롭게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오래도록 이것이 정신질환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야 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과를 찾았고 약물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약물복용 후 증상이 없어져 약을 중단하자마자 바로 환청과 환시가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아주 혹독하게 말입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환촉이란 증상도 찾아왔습니다. 환촉의 증상을 표현하자면 발가락이 잘려 나가는 아픔과 등가죽을 벗겨 내는 고통을 동반했고, 화약이 내 나팔관 속에서 폭발하는 뜨거움과 온갖 해산물들이 나의 몸속을 누비며 아픔을 주는 등 상상하기도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환촉은 저를 마른 장작처럼 아리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식욕부진으로 밥도 잘 먹지 못했던 저는 길에 쓰러졌고, 어떤 기관에 의해 마음사랑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여객선 같은 곳에서 표류하는 줄 알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환청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저를 마음사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께서 따스한 말과 격려로 안정을 취하게 해주셨고, 적절한 약물과 치료진들의 배려 덕분에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병원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노력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싶지만, 저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 자신을 다잡기 시작했고, 퇴원 후 갖게 될 일상생활들이 간절했습니다. 이대로 좌절할 수 없기에 마음을 다잡으려 시작한 것이 성경 읽기였고, 틈만 나면 읽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병동 안에서 이뤄지는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에 참여하며 환청, 환시, 환촉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산책과 아울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활용했습니다.

제가 아팠던 오랜시간 동안 가족들은 제게 지쳐있었고, 퇴원을 계획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저에게 주치의 선생님인 송봉용 원장님께서 재활을 꿈꿀 수 있도록 아름다운세상을 소개시켜주셨습니다. ‘급성기 환자의 치료부터 성공적인 사회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돕는다는 <드림브릿지>의 슬로건 하에, 마음사랑병원에서 퇴원하여 아름다운세상에서 재활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료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퇴원 후에도 여러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름다운세상을 찾습니다. 제게 친절과 같은 곳이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선생님들과 담소도 나누며 상담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병이 발병하였을 때 영문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 혼자 아프며 두려움에 떨었던 지난날을 생각 하면 참 어리석었던 생각도 듭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약을 복용하며 저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에 대해 주치의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제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도 도와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는 조현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받아주고 같이 아파해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달에 한번 약을 타러 마음사랑병원에 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정겹게 맞아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가끔 전화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주시는 직원들의 격려 속에 저는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음사랑병원이 저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사랑을 주시며, 진실된 치료를 통해 저처럼 많은 이들이 회복하여 당당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사랑 꽃,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글 | 사회사업팀 김수빈 사회복지사

마음사랑병원에는 일 년 내내 병원 곳곳에 꽃들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중에서도 환자분들을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는 그 꽃은 바로 자원봉사자님들입니다. 사랑으로 열정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이들을 소개하고, 본원에서 어떤 봉사활동들이 진행되는지 안내드립니다.



처음 방문하는 봉사자 분들부터 활동을 지속한지 20년이 넘는 분들, 그리고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께서 본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종교 활동(기독교, 천주교)>,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말벗 봉사>, 신나는 음악과 다채로운 공연들로 환자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시는 정서지원 부분과 환자들의 맛있는 식사를 위한 식재료 손질, 환자들의 깔끔함과 멋짐을 책임져주는 이미지용 봉사와 같은 <생활지원 봉사>, 이외에도 병동에는 활기를 띄워주는 프로그램 진행 같은 <재능기부 봉사>가 진행됩니다. 나에게서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환자분들에게는 감각을 일깨워주고 일상에 활기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활동들이며 병원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 분들께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큰 만족감을 표현 하십니다. “봉사를 하러 와서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고 간다.”는 공연팀 봉사자님, “봉사하러 오늘 길이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며 부산에서 완주까지 방문 해주시는 봉사자님, “식재료를 손질하며 인스턴트 식품의 사용 없는 신선한 원재료에 놀랐고 봉사 후 먹는 맛있고 균형있는 식사에 두 번 놀랐다”는 봉사자님,

“밝은 미소와 인사는 물론 마음사랑병원 사명에 맞춰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봉사자님의 소감 등 단순히 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마음사랑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원에서는 마음사랑병원을 찾아주시는 봉사자분들을 위해 어떤 것을 제공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 달달한 커피, 겨울에는 따뜻한 차와 간식으로 봉사자분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꼼꼼한 출석 체크로 봉사실적 시스템에 입력과 함께 매년 공적조서 작성을 통해 장관 및 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자원봉사자 송년행사>를 진행함으로써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봉사자 수상, 참여자분들을 위한 선물, 맛있는 뷔페식사까지 봉사자님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에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 라는 말처럼 타인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행복과 향기를 퍼트릴 줄 아는 봉사자분들을 마음사랑병원은 항상 응원합니다.♥



마음사랑병원 자원봉사 신청 및 문의 063-240-2162 (사회사업팀 자원봉사 담당자 김수빈)

마음사랑병원에 꽃을 활짝 피워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환자와 고객의 든든한 만능해결사 마음사랑병원 원무팀 이야기



또! 일어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설명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또! 인사하자!
가족과 애인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아자아자
원무팀 파이팅!!

고객이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 바로 원무팀입니다. 외래진료와 입원 시 환자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접수/수납을 담당하는 부서로 입원수속, 서류발급 및 여러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내 방문하는 고객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부서인 만큼, 저희 원무팀은 다음 세 가지 일명 ‘또! 또! 또! 구호실천’으로 고객이 감동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정신과에 처음 입사 했을 때와 현재 고객을 대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첫 출근 전에는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한 환자들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오히려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마음이 고운 이들의 모습에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점차 보호자의 고충에 공감하게 되면서 지금은 서로 안부를 물을 정도의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어, 일이 더 즐겁고 보람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경청하며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이현정 사원>

Q. 원무팀에서 일하는 소감과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원무팀의 하루는 타 부서 직원들 보다 먼저 업무 준비를 하며 외래진료를 기다리는 고객들과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침 서비스 조회 때 배운 ‘눈 맞추고, 미소 건네며 인사하기’를 실천했더니, 처음에는 낯설어 경계하던 고객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신과 병원에 대한 선입견과 의심으로 접수 당시 투명스럽게 직원을 대하던 초진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의 진심 어린 서비스를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해줄 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무기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이민섭 사원>

Q. 마음사랑병원은 선생님에게 어떤 직장인가요?

A.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제게 주변지인들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마음사랑병원은 어때?”라고 묻곤 합니다. 저는 “이름 그대로 직원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게 해주고 환자의 마음도 사랑으로 적셔주는 병원”이라고 대답합니다. 마음사랑병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따뜻함이 어느새 저에게도 일상처럼 배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자와 가족을 더 큰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받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림 사원>

Q. 마음사랑병원에 근무하며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있나요?

A.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진행한 ‘신규직원 가족초청행사’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이 행사는 신규직원의 가족을 직장에 초대함으로써 자녀와 가족의 일터를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병원 식당에서 직접 만든 맛있는 뷔페 식사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며,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과 형제에게 “나 이런 곳에서 일해”라고 말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부모님께선 행사에서 촬영해 선물해주신 가족사진을 보며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 하곤 하십니다.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준 병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연아 사원>

Q. 원무팀 업무 중 보람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마음사랑병원은 전라북도 공공정신의료기관으로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의뢰뿐 아니라 보호입원 문의가 참 많습니다. 치료를 오랫동안 망설였던 환자를 본원 고객상담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입원상담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노력한 끝에 입원치료를 도와 드릴 때면 항상 기쁩니다. 또한 건강보험 산정특례신청서, 장애진단서 및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등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당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 안내하여 도움을 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치료를 결정하고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고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해결해드리는 든든한 원무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연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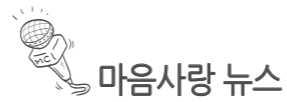
Q. 원무팀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중요시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A. 직원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일시적인 좋은 분위기나 직원 한 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평소 직원 상호간 신뢰가 밀착된 채, 상하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선배라고 해도 후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소통하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원무팀에서 가장 중점을 기울이는 부분은 ‘소통’이며, 직원들이 소속감을 통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염정후 팀장>

Maeumsarang News



마음사랑병원 한의사 진료시작



한방팀장 : 강 선 희

- 제주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부 한방사업팀 한의과장
- 광주우 중의약대학병원 임상과정 수료
- 홍콩침례대학 임상과정 수료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전문분야 통증·근골격계 질환

마음사랑병원 2020 신규직원 교육



마음사랑병원의 새 가족이 된 1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직원교육이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들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종사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본원의 <드림브릿지>로 구성된 낮병원을 견학하는 시간을 통해, 환자의 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체계적인 통합재활시스템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음사랑병원 2019 하반기 인산인 및 모범직원 표창



마음사랑병원은 2019년 하반기를 결산하며 인산인()과 모범직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인산인’은 병원발전에 공헌한 1인의 직원을 선발하여 상패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간호부 홍윤미 책임간호사가 선정되었다. 2008년에 입사한 홍윤미 책임간호사는 서비스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하며 본원의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였고, 급성기병동 심신치료센터의 책임간호사로서 환자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병동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병동간호사 및 보호사의 화합 및 성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산인으로 선정되었다.

하반기 결산 수상자

인산인 : 간호부 홍윤미 책임간호사

모범직원 : 마음사랑병원 : 김소리, 나설이, 백철호, 이화자, 이민섭, 김수빈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 김성은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백현찬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정해운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 신현정

마음사랑병원 홈페이지 <빠른 입원상담 예약> 시행



본원 홈페이지에 고객 연락처의 기입을 통해 신속한상담을제공하는 <상담예약창>을 개설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마음사랑병원에서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창을 통해 정신질환 관련 상담은 물론, 365일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입원상담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 www.maeumsarang.co.kr

마음사랑병원 **장수군보건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



2월 5일 ‘정신건강 공공의료 지원체계구축’을 목적으로 본원과 장수보건의료원이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고, 지역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하였다. 해당 협약을 통해 정신 및 치매 관련 의료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구축과 정신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음사랑병원 **DB생명보험과 업무협약 체결**



마음사랑병원은 DB생명보험 전주지점과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보건의료향상과 공동발전’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1월 28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DB생명보험 전주지점 의료취약계층 가입자 및 임직원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 교육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기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연계·의뢰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인 상호협조를 약속하였다.

재 / 단 / 소 / 식

노인요양시설 사랑드림 **사진동아리 ‘추억 담다’ 활동**



사랑드림은 2020년 특화프로그램인 사진촬영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동아리 <추억 담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사진전시회를 열어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사진촬영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며,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흐뭇한 소감을 전하였다.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치매가족 자조모임 어울림’ 운영자 교육 실시**



센터는 오는 3월 13일 도내 치매안심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치매가족 자조모임 어울림’ 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2018년 센터에서 발간한 ‘치매가족 자조모임 가이드북 어울림’에 수록된 12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치매환자 가족자조모임의 지역 정착 및 치매환자 가족에게 정서적·심리적 지지의 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년 시범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및 우울의 경감, 사회적지지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올해 도내 14개 치매안심센터에 확대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고을[Level-up]'사업 전개



센터는 정신건강 취약지역인 정읍시 A동을 대상으로 '생명고을[Level-up]사업'을 진행한다. 국립재난 안전연구원에 따르면 해당지역이 최근 6년 간 계속해서 자살고위험지역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A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방문상담, 지역대표·통장 생명지킴이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읍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회원들과 함께하는 2020 시무식 개최



아름다운세상은 <2020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작년 한 해 진행했던 사업을 돌아보고 2020년에 계획한 다양한 사업과 운영방향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이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강점실천 팀별모임을 새롭게 구성했다. 시무식을 통해 회원과 직원이 더 높이 성장하고 회원들이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순회교육 및 우울증 검진



노인 우울증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내 13개 읍·면 71개소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1월에서 3월까지 순회교육 및 우울증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의 우울증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향상과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새해맞이 군산여행



경자년을 맞이하여 회원과 종사자가 함께 군산 비응항으로 해돋이 여행을 다녀왔다. 일출을 보며 2020년 재활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다지고 새해 소원을 빌었으며, 이후 서천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자치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이처럼 아름다운세상은 당사자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음사랑병원 가족교육



가족교육

2020 마음사랑 가족교육 안내

마음사랑 가족교육은 가족들이 환자의 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제2의 치료자인 가족의 긍정적 기능을 개발,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환자 가족 및 정신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내용	진행자	
3월 25일	1부	조현병의 이해와 치료	강남민 진료과장
	2부	웃음치료	사회사업팀
4월 29일	-	환자와 가족이 함께 떠나는 '가족야유회'	사회사업팀
5월 27일	1부	정신과 약물 이해와 올바른 복용법	곽준 진료과장
	2부	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사회사업팀
6월 24일	1부	정신과적 위기 상황과 대처	이진영 진료과장
	2부	가족회원 마음 나눔	사회사업팀
7월 29일	1부	마음사랑병원 병동별 치료 과정	신정은 간호부장
	2부	마음사랑 장학회	사회사업팀
8월 26일	1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법(M-ECT 등)	남윤주 진료과장
	2부	자원봉사자 공연	사회사업팀
9월 23일	1부	환자와의 의사 소통	이건학 진료부장
	2부	낮병원 회복수기 발표(낮병원)	사회사업팀
10월 28일	1부	증상 재발과 가족의 역할	김경민 진료과장
	2부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소개	사회사업팀
11월 25일	1부	만성정신장애와 신체건강(당뇨, 알콜 및 흡연 등)	고요한 전공의
	2부	금연교육	사회사업팀
12월 23일	-	마음과 사랑이 만나는 시간 '가족송년회'	사회사업팀

1부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의 증상, 치료법, 약물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하여 재발을 예방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집중 교육입니다.



2부 프로그램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회복 수기 발표, 치료레크리에이션, 야유회 등 프로그램을 계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 : 063-240-2114 (사회사업팀 가족교육 담당)



마음사랑병원 셔틀버스 운행안내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마음사랑병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셔틀버스(낮병원 포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병원 출발	08:30	08:40	09:30	10:20	10:45	11:45	12:20	13:30	14:00	14:30	15:30	16:10	16:45
소양(면사무소)													
고려병원 앞													
안골(파리바게트)													
모래내(농협)	08:55		09:55		11:10	12:10		13:55		14:55	15:55		17:10
안골(향연유외과)	09:00		10:00		11:15	12:15		14:00		15:00	16:00		17:15
수한방 병원 앞(고려병원 건너편)	09:04		10:04		11:19	12:19		14:04		15:04	16:04		17:19
소양(농협)	09:11		10:11		11:26	12:26		14:11		15:11	16:11		17:26
병원	09:15		10:15		11:30	12:30		14:15		15:15	16:15		17:30
전주역(웨딩의전당 건너편)		08:55		10:33			12:33		14:13			16:27	
건지산 이지음 아파트		08:57		10:35			12:35		14:15			16:30	
안디옥 교회 정문		09:00		10:36			12:36		14:16			16:31	
전주덕진소방서 옆(전주시 재활용센터)		09:03		10:37			12:37		14:17			16:32	
롯데렌터카 전주지점(삼성증권 전주지점 옆)		09:10		10:43			12:43		14:23			16:38	
고속버스터미널(택시승강장 건너편 천변)		09:12		10:44			12:44		14:24			16:41	
시외버스터미널(중앙병원)		09:15		10:46			12:46		14:26			16:43	
한국은행 옆(공간타일도기)		09:20		10:50			12:50		14:30			16:45	
모래내(농협)		09:25		10:55			12:55		14:35			16:50	
안골(향연유외과)		09:28		10:58			12:58		14:38			16:53	
복일초등학교 정문(수협)		없음		11:00			13:00		14:40			없음	
대자인 병원 정문(자민약국)		09:31		11:02			13:02		14:42			16:56	
전주역 건너편(서강재활사)		없음		11:03			13:03		14:43			없음	
굴다리(CU 편의점)		09:35		11:07			13:07		14:47			16:58	
병원 도착		09:45		11:20			13:20		15:00			17:10	

*공휴일은 운행되지 않으며, 토요일은 오전까지 미니순환버스만 운행됩니다.(미니순환버스:1,3,5,6,8,10,11,13회/대행버스:2,4,7,9,12회) *운행 시간표 및 노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문의전화:063-240-2100)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평화동방면)

노선	1회	2회	3회	4회
병원 출발	8:40	10:20	14:15	16:10
슈퍼동 나이트	8:51	10:31	14:26	16:21
아중리 지하보도(파리바게트)	8:53	10:33	14:28	16:23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8:56	10:36	14:31	16:26
현대자동차(KT 옆)	9:00	10:40	14:35	16:30
경원동 기업은행	9:04	10:44	14:39	16:34
남문치과	9:06	10:46	14:41	16:36
서서학동 화신탕	9:08	10:48	14:43	16:38
평화동 지하보도(전주농협)	9:10	10:50	14:45	16:40
티파니힐	9:12	10:52	14:47	16:42
광진공작아파트 버스 승강장	9:15	10:55	14:50	16:45
남양향실아파트 버스 승강장	9:18	10:58	14:53	16:48
화산체육관 버스 승강장	9:22	11:02	14:57	16:52
한일고 지하보도	9:25	11:05	15:00	16:55
금암동 우성 밧데리	9:27	11:07	15:02	16:57
전북은행 본점 버스 승강장	9:31	11:11	15:06	17:01
전북대병원 입구 버스 승강장(금암고물상)	9:34	11:14	15:09	17:04
대자인병원 응급실	9:37	11:17	15:12	17:07
전주역(서강재활사)	9:39	11:19	15:14	17:09
굴다리(CU 편의점)	9:42	11:22	15:17	17:12
병원 도착	9:50	11:30	15:25	17:2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눔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후원회

'마음사랑후원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인간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마음사랑후원회**는 내부 직원 및 외부 후원자 약 600명이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참여방법 (☎ 마음사랑병원 사회사업팀 : 063-240-2150)

- 정기 후원**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직접 지정해 주신 계좌에서 매월 5,000원 이상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 비정기후원**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농협 : 351-1066-5417-13 마음사랑후원회)
- 물품 후원** 의복, 식품, 도서 및 생활필수품 등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2019년 8월~2020년 1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명단

자원봉사자 총 291명	
[생활지원_헤어나눔공작소]	강남정, 강성자, 강영란, 경미소, 구윤민, 김도연, 김동해, 김리한, 김문선, 김명자, 김명희, 김미경, 김병희, 김보영, 김성호, 김세현, 김연실, 김영실, 김은영, 김은혜, 김경자, 김중후, 김지은, 김진희, 김해경, 김현숙, 박은아, 박정호, 박은아, 박희순, 배찬은, 변형준, 소길래, 송준섭, 서은애, 설동원, 신병문, 양인숙, 양 현, 양해운, 임문희, 영종원, 유진영, 옥기순, 윤옥남, 윤정희, 이미영, 이순의, 이상기, 이옥남, 이유숙, 이윤희, 이은경, 이태근, 이해소, 임갑경, 임선희, 전소연, 전은경, 전은숙, 정아수, 조말순, 조현자, 최동환, 최설아, 최윤경, 최정호, 한민규, 황재희, 홍익현 (71명)
[생활지원_식당]	이길순, 이영로, 홍옥희, 정순례, 전계자, 황선희, 이순단, 김순옥, 유금순, 이순애, 이연남, 이점순, 송은애, 김순자, 김연순, 전옥녀, 김용희, 박영순, 육복순, 권경남, 국민숙, 이종화, 라봉자, 이영순(63년), 백경희 (25명)
[생활지원_개인자원봉사자]	백영환, 오정화, 박주은, 마승안, 노찬희, 박승규, 김영환, 이준산, 박민술, 최혜인, 고은비, 유지수, 설예진, 이승민, 유찬우, 김민영, 송인준, 이주연, 김규영, 이가은, 이경은, 윤서희, 정하은, 강요한, 이양훈, 박윤규, 류 진, 황경옥 (28명)
[정서지원_기록교]	신은순, 유순혜 목사, 백구현 목사, 박은경, 심진주, 류시영, 박경순, 최병준, 이금남, 허영순, 김태식, 김광서, 송진화, 신필화, 양선자, 최영옥, 임봉환, 정해명, 정윤영, 조대진, 임춘희, 신민정 목사 (22명)
[정서지원_천주교]	소양성당 이장춘(프란치스코)신부, 서용자, 방인수, 김숙자, 이가은, 김영란, 박인애, 최영찬, 김금숙, 안은영 (10명)
[정서지원_다도]	김금남, 김찬림, 이미경, 최희은 (4명)
[정서지원_공연봉사단]	'늘푸른 합창단' 원주 문화의집 '국악공연' '소리에 반하다' 호신나 공연 '시니어들' '웃음울동' '우물오기뮤직앙상블' '사랑나눔봉사단' '소리, 문화창작소 산' '색소폰아카데미' '국악공연' (약 120명)
[자원봉사자(학교)_전주대]	박소현, 김아현, 송주은, 정선화, 이지영, 김강, 김지혜, 정혜리, 박서민, 최민, 장시훈 (11명)

외부 후원 총 446명
 (유)천보그린, (주)내외정보기술, (주)동남의료약품, (주)보갑병원지점, (주)인스나인, 기재숙, 강경옥, 강경희, 강나루, 강수경, 강영석, 강인숙, 강찬오, 강재은, 강화숙(장원유니움), 강희봉, 정대용, 고남수, 고병준, 고석오, 고순화, 곽동호, 곽영영, 곽대원, 구도형, 권선미, 권용주, 김경호, 김경호(우아식품), 김경희, 김광현, 김구현, 김기덕, 김기봉, 김남일, 김내영, 김달진, 김대용, 김동렬, 김동철, 김리원, 김미경, 김민재, 김민채, 김병직, 김복순, 김성진, 김성수, 김성숙, 김성식(1981), 김성식(1975), 김성태, 김소연, 김소영, 김수연, 김순희, 김승민, 김승재, 김시연, 김민정, 김영민, 김영실, 김영우, 김영자, 김영희, 김옥단, 김옥심, 김용문, 김용욱, 김용경, 김용진, 김용현, 김원주, 김윤경, 김윤중, 김은경, 김은애, 김은지, 김경남, 김경선, 김정은, 김정은, 김경화, 김경희, 김중국, 김중원, 김준근, 김준현, 김중은, 김지수, 김지현, 김지은, 김지혜, 김진희, 김진희, 김찬영, 김창현, 김학근, 김현기, 김현자, 김현희, 나경미, 나기원, 나의현, 노경찬, 노옥희, 노옥희, 노진성, 노현정, 도용약품, 돌만용, 류세나, 류형선, 오은영, 문기영, 문리리, 문미경, 박경철, 박근영, 박금옥, 박기성, 박문규, 박미자, 박매희, 박병순, 박병준, 박병철, 박보람, 박성희, 박삼환, 박상규, 박세화, 박순례, 박영민, 박영희, 박요성, 박윤희, 박인경, 박자순, 박경호, 박지희, 박천미, 박현철, 박현경, 박현숙, 박혜빈, 배서라, 배숙환, 배옥희, 배자영, 백도현, 백석기, 백선중, 백수경, 백조아, 백현찬, 변동근, 변오석, 서경태, 서숙연, 서정원, 서준우, 선진태, 생백중, 성병일, 성병우, 성병희, 성 실, 성윤정, 성진영, 손주은, 송영영, 송민선, 송병식, 송선희, 송애란, 송영란, 송원선, 송은혜, 송인미, 송중훈, 송지연, 송 호, 신명옥, 신영(어진유물), 신은옥, 신태식, 신필화, 신희호, 신해진, 신화숙, 심경숙, 안관호, 안미영, 안성옥, 안승규, 안시현, 안정희, 안종식, 안태훈, 안훈규, 양승주, 영성국, 영혜영, 오복순, 오상호, 오은영, 오재천, 오정화, 오혜진, 왕순임, 용몽기, 용성영, 용태진, 우옥녀, 우영근, 원경화, 원다혜, 유능한, 유도근, 유수연, 유은선, 유은영, 유재영, 유지민, 유창균, 유충열, 유해광, 유현희, 유현희, 유호철, 옥희정, 윤광수, 윤남순, 윤문재, 윤미라, 윤석용, 윤성숙, 윤창수, 윤혜진, 윤훈경, 이상봉, 이가은, 이경은, 이광배, 이금남, 이기성, 이남숙, 이다은, 이대현(1963), 이대현(1984), 이도규, 이동명, 이득남, 이미림, 이미숙(1963), 이미숙(1968), 이민지(1989), 이민지(1991), 이범식, 이범영, 이병관, 이병도, 이상고, 이상주, 이상봉, 이상호, 이상성, 이상재(1970), 이상철, 이수진, 이순영, 이순철, 이순환, 이연수, 이연숙, 이영광, 이영우, 이영일, 이영자, 이영희, 이옥순, 이옥심, 이유나, 이은미, 이은지, 이은희, 이의철(한주상사), 이인원, 이인재, 이장혁, 이재건, 이재은, 이재현, 이경덕, 이경숙, 이경우, 이정은, 이종애, 이종원, 이종철, 이준, 이준영, 이준희, 이지영, 이지현, 이진수, 이진희, 이창수, 이창원, 이차섭, 이태형, 이현민, 이현숙, 이현주, 이형구, 이형규, 이효숙, 이추경, 이희선, 이희진, 임경숙, 임경환, 임대식, 임대영, 임두수, 임미영, 임영석, 임영수, 임윤희(경아영), 임용환, 임인서, 임종학, 임지영, 임창진, 임현희, 장선호, 장연, 장영진, 장용수, 장은옥, 장지훈, 장지훈, 장한보, 전북종합박스, 전석원, 전세환, 전은신, 전현수, 전현순, 전환홍, 정경미, 정병우, 정수경, 정순식, 정순태, 정승현, 정영석, 정은누리, 정윤숙, 정은빈, 정은희(하림완산대리점), 정외성, 정지현, 정진권(보성수산), 정진철, 정충용, 정해은, 정해경, 조명희, 조미영, 조선우, 조순철, 조우진, 조용호, 조재익, 조형문, 조훈, 지문현, 진공숙, 진영준, 차동훈(서울유아종합보육소), 차연수, 채길경, 채효선, 천창영, 최고은, 최동순, 최동원, 최 란, 최명길, 최미영, 최미영, 최상수, 최수석, 최영실, 최영철, 최용석, 최윤석, 최윤규, 최인석, 최인성, 최진기, 최현식, 최현준, 김스미디어, 하나구급센터, 하나구(하이푸드), 하선경, 한대현, 한길순, 한대진, 한병길, 한성중(주)태중, 한술에이맥스, 한승희, 한시중, 한신희, 한영자, 한재근, 한정순, 한정희, 한현수, 허미란, 한희성 (부귀농협김치), 형명자, 홍문기, 홍상표, 홍선화(1973), 홍선화(1985), 홍인현, 홍지용, 홍진성, 홍조룡, 황 성, 황철현, 황하아, 전북간호사협회 (총 446명)

내부 후원 총 164명
 강경식, 강남민, 강서연, 강성환, 강수연, 강승민, 강애슬, 강원희, 강정선, 강혜진, 고소영, 고정선, 곽 준, 구유준, 권은경, 김 만, 김민진, 김병태, 김복덕, 김서경, 김서현, 김성수, 김성심, 김성의, 김소영, 김수민, 김수용, 김연아, 김예은, 김윤호, 김은애, 김은진, 김숙자, 김경은, 김지우, 김지태, 김현수, 김현희, 김형태, 김화경, 나설이, 당명일, 모은희, 박민실, 박상철, 박소라, 박용현, 박윤석, 박경은, 박경희, 박지영, 박찬숙, 박 현, 박혜인, 배윤례, 배은희, 배현민, 백경림, 백주희, 백철호, 서소영, 서지훈, 서정현, 소경선, 손성순, 송영재, 송봉용, 송석주, 송혜정, 신연숙, 신정은, 심성주, 영정후, 오남수, 오동혁, 오영실, 오유림, 오진숙, 용태영, 유지연, 유미순, 유승기, 유연실, 유현아, 유혜림, 윤경선, 윤여민, 윤희성, 윤홍익, 이건우, 이진화, 이구현, 이금단, 이나라, 이다민, 이민섭, 이민경, 이세현, 이수진, 이승연, 이승희, 이아름, 이윤진, 이은자, 이정영, 이정숙, 이주희, 이지연, 이진영, 이진주, 이준재, 이유란, 이하경, 이해림, 이현정, 이혜숙, 이화자, 이희선, 이희준, 임덕민, 임지은, 임동근, 임솔미, 장유미, 장현우, 장혜숙, 전대원, 전은지, 정경남, 정보라, 정성균, 정연숙, 정은진, 정외성, 정현순, 조대성, 조아라, 조인정, 주 진, 진연호, 천영자, 최강현, 최금철, 최수경, 최신미, 최인숙, 최채희, 최하은, 최현재, 최현규, 최훈석, 허근태, 허영숙, 한영일, 한성우, 한진희, 황수경, 홍인희, 홍성우, 홍성우, 홍정숙, 홍정숙, 황승연, 황다은

2019년 마음사랑후원회 수입 지출 현황

후원금 모금액	의료비 및 간식비 지원	장학금지원	이월금
49,342,758원	982명 / 45,202,062원	13명 / 4,300,000원	20,910,922원



조기집중치료!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라고 의심되는 순간
 바로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빠른 회복을
마음사랑병원 이 돕겠습니다!

마음사랑병원 급성기 집중치료 심신치료센터

급성기 입원 환자의 다학제적 평가를 통한 초기진단과 치료계획에 의해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전문화된 집중치료를 시행합니다.

환자중심의 치료환경을 갖춘 급성기 집중치료병동으로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신속하고 전문화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실의 확장을 통해 급성기 환자를
 더욱 빠르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